

조금 더 침묵하고 조금 더 따뜻한 가슴으로
진실한 말을 잉태할 시간이 우리에게겐 필요합니다.

- 성전스님 -

김동일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장, 중덕·정덕 법계 과정 연수 교육에서 건강 강좌 진행

김동일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장이 ‘슬기로운 생로병사 이야기’라는 주제로 9월 11일 ‘2025년 중덕·정덕 법계 과정’ 연수 교육에서 건강 강좌를 진행했다. 김동일 병원장은 강좌를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해 다루며 몸과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는 다양한 질병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연수 교육은 조계종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으로 충남 공주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렸으며, 이날 강좌에는 연수 교육 대상 스님들이 참석해 생로병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동국대학교의료원 2025학년도 2학기 신입교원 임용장 수여식 개최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지난 9월 9일 본원 5층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2학기 신입교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백용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이 참석하여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규임용 대상자는 외과 김언빈 조교수, 외과 황두영 조교수, 내분비내과 김조은 부교수 총 3명이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우수한 인재 확보와 함께 의료·연구·교육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환자 진료의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특강’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8월 27일과 9월 3일 2차례에 걸쳐 본원 5층 대강당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이란 주제로 노무법인 파란 부대표 변진호 노무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개최했다. 4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특강은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에 대한 개념과 사례,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근절하고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백용해 병원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교직원 모두가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자비의 씨앗,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2천만 원 전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개원 20주년을 기념하여 익명의 스님이 병원 발전기금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진 이번 기부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스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2천만 원은 병원의 더 나은 성장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자, 환자들을 위한 의료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명숙 대외협력홍보팀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주신 익명의 스님께 깊이 감사 드린다”며 “기부금은 병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씨앗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원 20주년 기념 특별 코너

그땐 그랬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20년의 이야기

지난 시간 동안의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병원이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아요.

교직원 체육대회
2009. 10. 10.

